

# BRAHMS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브람스 I, II

K B S S O X M Y U N G - W H U N C H U N G ' S B R A H M S

# MASTERS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2025. 3. 14. FRI 20:00**

롯데콘서트홀

##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68

⌚ 45'

### J. Brahms |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 I. **Un poco sostenuto - Allegro - Meno Allegro**(13')

조금씩 길게 끌어가며-경쾌하게-덜 경쾌하게

#### II. **Andante sostenuto**(10')

앞으로 나아가듯 연주함을 유지하며

#### III. **Un poco allegretto e grazioso**(5')

조금 경쾌하게 우아하게

#### IV. **Adagio - Più andante -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 Più allegro**(17')

느리게-조금 더 느리게-지나치게 경쾌하지 않게, 그러나 생기 있게-조금 더 경쾌하게

###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D장조, 작품73

⌚ 43'

### J. Brahms | Symphony No.2 in D Major, Op. 73

#### I. **Allegro non troppo**(18')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II. **Adagio non troppo**(10')

느리지만 지나치지 않게

#### III. **Allegretto grazioso (Quasi andantino)**(5')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마치 조금 느리게처럼)

#### IV. **Allegro con spirito**(10')

빠르고 활기차게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지휘 정명훈

MYUNG-WHUN CHUNG  
CONDUCTOR

“그는 영적인 지휘자” <르 몽드>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이 시대에 가장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의 포디움에 올랐다.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 수석객원지휘자,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현재 KBS교향악단 계관지휘자,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수석 객원지휘자, 도쿄 필하모닉 명예예술감독 및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역대 최초 명예지휘자로 임명된 바 있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오페라 바스티유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도이치 그라모폰에서만 40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으며,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국제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6년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음악가 상’,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3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평생음악상’, 2017년 이탈리아의 국가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MYUNG-WHUN  
CHUNG

# J H A N N E S

서양 음악사를 빛낸 수많은 작곡가들이 언제 어떻게 작품을 발표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예술 세계는 결국 그들 삶의 희로애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을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한 사람이자 낭만주의의 세계를 굳건하게 구축했던 요하네스 브람스가 지은 네 편의 교향곡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브람스를 직접 마주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브람스는 마흔 셋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교향곡을 발표했다. 함부르크에서 보냈던 고단했던 어린 시절부터 음악의 위인들과 함께 빈에서 영면에 들기까지, 부지런히 음악가로 또 작곡가로 바빠 지낸 그의 삶을 따져보아도 교향곡의 등장은 분명 꽤 늦은 편이다. 기악 독주곡부터 협주곡, 실내악과 교향곡 등 다양한 편성의 작품 수어 백 편을 부지런히 창작했던 그였기에 교향곡 발표에 열을 올리지 않았던 일이 궁극하지 않을 수 없다. 재미있게도 이토록 성실했던 창작의 삶을 살았던 그가 유독 교향곡 발표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따라가 보면 의외로 단순한 결론에 이른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 때문이 아닌, 바로 그의 마음이다. 예술가의 예술 작품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섭리를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론 그가 교향곡 작곡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가정도 할 수 있으나, 그와 그의 지인들이 남긴 기록들이 이 가설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는 베토벤과 베토벤이 남긴 9편의 교향곡을 깊이 존경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인을 떠올리면, 누구라도 편히 교향곡을 쓸 수 없을 것이다”는 그의 심경은 지금까지 전해질 정도다. 베토벤이 남긴 9개 교향곡의 존재와 베토벤에 대한 그의 순수한 마음은 쉽사리 교향곡 작업을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그는 베토벤 이후의 음악들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마저 갖고 있었는데,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이후에 발표되는 모든 새로운 교향곡에 대한 굉장

한 부담을 자청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베토벤 이후의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일에도 큰 부담을 느꼈다.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존경하는 동시에 그를 넘어선 새로운 어법을 창조하고자 했던 것이 브람스가 추구했던 궁극의 목표였던 셈이다. 또한 평소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했던 완벽에 대한 그의 성격도 교향곡의 늦은 출발에 한 몫 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슈만의 예언처럼 새로운 시대를 위해 결국 이상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다.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여러 편성의 작품들을 작곡하며 교향곡을 지을 토대를 마련했다고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는 마흔 셋이 되던 해부터 예순이 되던 해까지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교향곡에 대한 열정을 악보로 옮겨갔다. 총 네 곡의 교향곡을 마치 화려하고 성대한 축포처럼 발표했다. 물론 이 교향곡들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작품이 결코 아니다. 오랜 세월 그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악보에 적었다 지웠다를 반복했던 교향악의 영감들이 다양한 작품을 오가며 쌓여 이룬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그가 지은 교향악의 악상들은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첨예하게 설계되었다. 지금까지도 낭만주의의 한 획을 그은 큰 작품들로 칭송받는다. 베토벤과 그리고 베토벤 이후의 희망을 바라며 지은 대서사시로 불러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교향곡에 대해 “나의 교향곡은 길고, 어떤 특별한 매력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 또한 그가 어떤 성품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것이 그가 남긴 네 편의 교향곡들이 오늘날까지 빛나게 된,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이야기다.

# B R A H M S

#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 68

J. Brahms / Symphony No.1 in c minor, Op. 68

<b>작곡연도</b>	1855년-1876년
<b>초연</b>	1876년 11월 4일, 독일 칼스루에 (Karlsruhe)
<b>편성</b>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콘트라바순(본 공연은 목관 악기군 더블링 연주)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팀파니, 현 5부
<b>연주시간</b>	약 45분

**“당신의 작고 조용한 1층의 작은 방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겠지요. 당신은 어디에서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내니까요. 멋진 폭풍우가 치는 하늘을 교향곡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사람이예요. 누가 알겠어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1860년 6월 21일, 클라라 슈만이 브람스에게 쓴 편지 중 일부 발췌

1853년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평론가로 활동 중이던 로베르트 슈만은 청년 요하네스 브람스를 만났다. 그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슈만은 평론 ‘새로운 길’을 통해 유럽 대륙에 브람스의 존재를 알렸다. “시대의 가장 높은 이상을 표현할 메시아”, “언젠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청중들이 그에게 힘을 빌려줄 수 있을 때가 되면, 브람스는 마법의 지팡이를 내릴 것이다”는 표현으로 슈만은 함부르크 출신의 젊은 음악가 브람스를 열렬히 응원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브람스는 데트몰트 궁정 피아니스트, 함부르크 여성합창단 지휘자, 빈 징아카데미 지휘자, 빈 악우협회 음악감독 등 다양한 음악 활동과 작품을 창작하며 당대의 유망 음악가로 활약을 시작했다.

**“당신은 너무나도 과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음악을 통해 말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지요. 혹시 지난번에 보여준 교향곡의 다음 악장을 볼 수 있을까요?”**

- 1860년 6월 30일, 브람스의 음악적 친구 요아힘이 브람스에게 쓴 편지 중 일부 발췌

당시 그를 응원하던 음악적 친구들은 바쁜 활동 중에서도 교향곡 작곡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누군가 교향곡을 작곡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베토벤의 교향곡과는 다른 작품을 써야만 할 것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소 그가 가졌던 베토벤에 대한 순수한 존경이 음악적 완벽을 추구했던 그의 철학과 맞물려 좀처럼 교향곡 작업에 들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1862년 6월 10일 그의 친구 알베르트 디트리히는 “이 작품의 1악장 악보를 보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또 1869년 출판업자 프리츠 짐로크는 브람스에게 “당신의 교향곡을 기다리고 있다”, 1870년 “당신이 쓸 교향곡의 영구 출판을 제안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브람스가 짐로크에게 보낸 답장은 “나는 결코 교향곡을 쓰지 않을 것이다”였다. 이렇게 그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듯 했지만, 훗날 브람스는 슈만이 1855년 경 〈교향곡 제1번〉의 첫 아이디어를 스케치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1868년 클라라 슈만의 생일날 보낸 편지에서 “알테 호른의 주제를 떠올렸다. 산에서 또 깊은 계곡에서 당신에게 천 번의 인사를 보낸다”라는 글과 함께 이 작품의 4악장 주제를 담은 악보를 그려 보냈다. 여러 기록으로 유추해볼 때 브람스는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할 때까지 분명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교향곡 작업에 대한 열정을 조용하게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 제1번〉은 본격적으로 빈에서 작곡되었다. 브람스에 따르면 첫 악상의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약 21년이 걸린 작품이다. 초연은 1876년 11월 4일 독일 칼스루에 궁정 극장에서 지휘자 펠릭스 데소프가 지휘하는 궁정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열렸다. 길고 긴 여정을 지나 드디어 브람스의 첫 번째 교향곡이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유럽 음악계는 그의 첫 번째 교향곡에 대해 엄청나고 거대한 브람스의 교향곡을 환영했다. 지휘자 한스 폰 뷔로 남작은 ‘베토벤의 10번째 교향곡’이라고 칭송했다. 이 작품 속에 베토벤을 추앙했던 브람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구조도 찾아볼 수 있다.

## I. 조금씩 길게 끌어가며-경쾌하게-덜 경쾌하게 Un poco sostenuto-Allegro-Meno Allegro

팀파니의 울림과 현악기들의 장엄한 분위기는 브람스 생의 절반을 기다렸던 첫 번째 교향곡 탄생과 더불어 그가 추앙했던 베토벤이라는 거인의 발자국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 한 순간 빈 틈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이 아름답고 완벽한 구조 속에서 브람스만의 아이디어가 흐른다.

## II. 앞으로 나아가듯 연주함을 유지하며 Andante sostenuto

서정적인 선율이 때로는 힘있게 때로는 유려하게 흐른다. 1악장의 무겁고 느린 어찌면 침울한 힘과 대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아름다운 목관악기의 선율과 현악기의 노래가 차례차례 힘을 실어 오케스트라 모든 파트의 악기들이 차례차례 대화를 이어간다.

## III. 조금씩 경쾌하게 우아하게 Un poco allegretto e grazioso

브람스풍의 여유가 밝게 드러나는 노래가 펼쳐진다. 마치 춤곡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현악기와 목관악기가 아름답게 서로의 음악을 노래하다가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에서 경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 IV. 느리게-조금 더 느리게-지나치게 경쾌하지 않게, 그러나 생기 있게-조금 더 경쾌하게

Adagio-Più andante-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Più allegro

강렬하다. 절대 가볍지 않은 피날레다. 생애 최초 교향곡을 완성한 브람스의 승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듯하다. 모든 파트의 음악적 대화가 무르익는 가운데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4악장 ‘환희의 송가’ 선율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도 흐른다. 브람스는 4악장 속 흐르는 베토벤의 선율과 흡사한 부분에 대해 “멍청이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채치 있는 의견을 남겼다. 화려하고 밝은 끝맺음이다.

#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D장조, 작품 73

J. Brahms / Symphony No.2 in D Major, Op. 73

**작곡연도** 1877년

**초연** 1877년 12월 30일, 오스트리아 빈(Wien)

**편성**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본 공연은 목관 악기군 더블링 연주)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현 5부

**연주시간** 약 43분

브람스가 작곡가로, 음악가로 승승장구하던 1877년의 여름, 그는 현재 오스트리아의 최남단 피르차흐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호수 뵈르트 호의 풍광을 무척 사랑했던 그는 두 번의 여름을 이곳에서 보냈다. 재혼한 아버지, 이혼한 어머니, 자신의 그늘에 가려 늘 미안해했던 남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내며 살아갔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만난 일종의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예술가에게 이런 장소는 곧 창작의 세계로 향하는 비밀 통로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곳에서 <교향곡 제2번>을 단 4개월 만에 완성했다. <교향곡 제1번>을 발표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분명 이 작은 호숫가 마을에서 그는 영혼의 쉼 그리고 작곡가로 활기에 찬 에너지를 받았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그와의 인연을 기념하고자,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가을 피르차흐에서는 <국제 요하네스 브람스 콩쿠르>가 열린다.

1877년 11월 22일 브람스가 이 작품의 초판을 발행한 짐로크 출판사의 프리츠 짐로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이렇게 슬픈 음악을 써본 일이 없다. 이 교향곡은 애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 제2번>은 1877년 12월 30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에서 지휘자 한스 리히터가 이끄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이날 빈 청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인기에 힘입어 곧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그리고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에서도 연주되었다. 특히 그는 함부르크 초연에서 직접 지휘 했는데,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에게 잊지 못할 무대로 남았다.

그는 이 작품을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소품>으로 편곡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자주 들 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브람스가 남긴 4개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브람스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I.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Allegro non troppo

D장조 제1주제는 현 파트에서 목관 파트에서 호른으로 이어진다. 제2주제는 제1주제를 이끌던 목관과 호른과 함께 비올라, 첼로가 발전시킨다. ‘브람스표 교향악’의 특징 중 하나인 전체 화성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브람스의 <자장가, Op. 49의 4번>의 선율과 함께 흐른다. 발전부는 호른과 오보에, 플루트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며, 재현부에서 다시 제1주제를 목관 파트와 현 파트가 마무리한다.

## II. 느리지만 지나치지 않게 Adagio non troppo

B장조 첼로와 파곳,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제1주제를 대위법으로 쌓아가다, 목관으로 제2주제를 받아간다. 발전부에서는 제1주제가 바이올린으로 이어지며, 재현부는 제1주제를 중심으로 다시 펼쳐진다. 브람스만의 서정적인 인상이 깊은 악장으로, 현 파트의 낮은 음역과 목관 파트의 품위 있는 선율이 화음을 이룬다. 특히 팀파니의 울림이 아름답다.

## III.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 Allegretto grazioso(quasi andantino)

G장조 오보에가 들려주는 제1주제는 경쾌하게 여러 악기로 변주된다. 제4악장의 여러 요소를 미리 제시하는데, 재빠르고 활기찬 현 파트와 목관 파트의 선율들이 재치 있게 어우러진다.

## IV. 빠르고 활기차게 Allegro con spirito

D장조 브람스는 4악장의 작곡을 마친 이후에, 악장의 빠르기를 총 3차례 바꿨다. 처음에는 ‘보통 빠르기로 활기차게’에서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고 활기차게’로 정했다. 그의 교향곡 중에서 유일하게 튜바를 편성한 악장이다. 발전부와 재현부는 제1주제를 다시 들려주며, 코다에서 금관 파트를 중심으로 막을 내린다. 굉장히 신나고 들썩이는 분위기 속에서 브람스가 말했던 슬픔들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굉장히 화려한 결론의 피날레다.

글 | 정은주 (음악 칼럼니스트)

 YouTube  



## 승고하고 장엄한 '위로의 노래'... 정명훈의 '부활'

나 살기 위해 죽으리라!  
Sterben werd' ich, um zu leben!

'광야의 팡파르'가 아득히 들려오자, 스네어 드럼이 진격하고 금관 악기들의 필사적 분투가 시작된다. 고통스럽도록 지난한 굉음들의 폭격이다. 거친 소리들은 세상의 종말이 당도할 것 같은 불길함을 뿜어낸다. 난폭했던 금관이 잠시 숨을 고르면, 최후의 날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솟구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내몰릴 때, 고요 속에서 서서히 인성(人聲)이 들려온다. 모든 악기가 숨을 죽인 채, 오로지 사람의 목소리로만 들어가는 '부활의 노래'는 그 어떤 찬가보다 성스럽다. 그제야 모든 환란이 걷히고, 한 줄기 빛이 도래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서막'이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말러가 다시 왔다. 지난 2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KBS교향악단의 811회 정기연주회에서다.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의 계관

지휘자로 함께 해온 정명훈과 악단의 2025년 첫 연주였다. 올해의 첫 번째 공연이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이라는 점은 여러 의미를 덧대기에도 적합했다.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의 계관 지휘자로 활동 중인 정명훈은 올해 무려 7회의 공연을 함께할 예정이며, 이번 연주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를 더했다.

공연은 일찌감치 피켓팅(피 튀기는 티켓팅의 줄임말, 공연 마니아들의 신조어)을 불러왔다. 정명훈의 말러는 한국의 무수한 '말러리안'을 기다리게 한 공연이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시절 한국 클래식 음악사에 이정표를 세운 '말러 사이클' 이후, 한국 악단과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정명훈의 말러를 마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KBS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말러 연주하는 그들의 '첫 번째 말러'라는 점에서 더 특별했다.

말러의 교향곡은 거대한 우주이자 끝 모를 심해다. 그 안엔 이름 모를 별들이 반짝이고, 정체를 알 길 없는 미지의 생명체가 수많은 소리로 존재한다. 스스로 "교향곡을 쓴다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하나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던 만큼 2번 '부활'에서도 '소리의 총체'로서의 음악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 후기 낭만주의의 대편성 곡인 '부활'은 4관 편성으로 10개의 호른과 트럼펫, 심벌즈를 비롯해 트라이앵글, 탐탐 등 독특한 타악기가 쓰인다. 말러의 기존 교향곡과의 차이라면, 2번은 장장 6년(1888~1894)에 걸쳐 작곡됐다는 점이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 멘델스존의 찬가 교향곡(2번),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 이후 합창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곡이기도 하다.

'부활'은 작곡가 말러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곳곳에 묻어난 곡이다. 작곡 배경부터 죽음이 개입됐다. 1888년 1월 라이프치히 오페라의 지휘자로 활동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버의 미완성 오페라 '세 사람의 핀도' 공연을 마치고 엄청난 호평 세례와 함께 잠든 날이었다. 그는 꽃으로 둘러싸인 침대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꿈을 꾸게 됐다. 말러 자신의 장례식 꿈이었다. '부활'의 1악장은 이 꿈을 통해 태어났다. 당시 쓴 곡은 '죽음의 제전', 즉 장례식이라고 불렸다.



애초 이 곡은 '교향곡'으로 완성될 곡은 아니었다. 말러는 이 곡을 1891년 '장례식'이라는 교향시로 출판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말러가 존경하는 선배이자 스승인 한스 폰 뷔러는 그가 연주한 '장례식'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혹평을 쏟아냈다. 뷔러는 말러에게 "그게 만약 음악이라면, 나는 평생 음악을 모르는 것이다", "이게 음악이라면 '트리스탄과 이졸데'조차도 하이든의 교향악 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의 '장례식'은 '부활'의 1악장에서 만나게 된다. 정명훈과 KBS교향악단의 1악장은 절도 있는 출발로 문을 열었다. 공연 전 어수선했던 객석의 눈과 귀를 완전히 집중케 하는 시작이었다. '빠르고 장엄하게(Allegro maestoso)' 진입해야 할 1악장은 '바그너 전문가'인 말러의 '바그너 오마주'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말러는 생전 510여 번이나 바그너를 지휘했다.

1악장에서 긴박하고 장엄한 트레몰로의 제1주제가 연주되면 곧이어 등장한 처음 현이 고개를 내민다. 바그너의 '발퀴레' 1막 도입부를 떠올리게 하는 '부활'의 서두는 정명훈과 만나 완전히 다른 색채를 그려갔다. 천둥처럼 부서지는 트레몰로라기 보다, 우아한 엄숙미가 더해졌다. c단조의 제1주제 뒤엔 E장조로 전환, 서정적인 제2주제로 온화하게 상승하는 현의 선율을 만들었다. 1악장에선 중저음의 현악기들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선율이 격조있는 순간순간을 만들었다. 활의 방향과 속도, 각도가 잘 맞아떨어졌으나, 소리의 밀도와 앙상블은 다소 왜소하고 험거웠다. 목관 군의 부드러운 선율은 1악장을 살려준 요소였다. 정명훈은 절제되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단원들을 이끌며 모든 악기가 소외되지 않도록 존재감을 끌어냈다. 복잡다단하고 격렬한 조성의 변화, 난데없이 등장하는 금관악기를 통한 급격한 곡의 전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과도 다르지 않았다. 극적인 변화들이 오페라와 같은 긴장감을 만들며 인간의 의지로는 거스를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이치를 마주하게 했다.



말리는 2악장을 ‘죽은 영웅의 행복한 과거 회상’이라고 했다. 가곡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2악장은 보통 ‘노래하는 교향곡’이라고도 불린다. 아름다운 2악장은 정명훈의 색깔과 감성이 더 많이 묻어났다.

‘산책하듯 보통 빠르기(Andante moderato)’ 노래하는 말리의 낭만적 선율을 느릿하게 이어갔다. 선명한 소리를 만나 생기가 더해지면서 무게 잡지 않은 가벼운 춤곡의 느낌이 살아났다. 하지만 소리의 깊이는 달랐다. 그 안에 진중함이 담겨 삶과 죽음을 돌아보게 한다. 정 지휘자는 ‘부활’을 통해 말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소리 하나하나가 들려오도록 조율했다. 피치카토로 연주하는 현악기 위로 피콜로가 지지귀고 하프가 사랑스러운 소리를 더하면 우리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나게 된다.

삶을 향한 찬미를 그린 2악장을 지나 3악장에 도달하면 말리의 보헤미아 정서가 물씬 풍긴다. 이 악장은 말리의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집 중 ‘물고기에 설교하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선율과 로트 교향곡 마장조 3악장 선율을 바탕으로 했다. 귀를 자극하는 무수히 많은 불협화음이 어디에도 숨지 않고 속속 존재감을 드러낸다. 2악장과 대구를 이루는 3악장은 불가해한 소리의 향연이다. 거대한 팀파니 소리로 시작해 등장

하는 8분의 3박자의 리듬은 반복적이면서도 헛바퀴 도는 듯한 삶을 그리며 관객의 귀를 괴롭힌다. 요란하게 터져 나오는 금관, 실 새 없이 소리치는 선명한 악기 소리는 정명훈의 기지 가득한 해석이었다. 앞서 두 악장에서 찾아온 앙상블의 아쉬움은 3악장에선 해소됐다. 거칠게 쏟아지는 음의 향연이 도리어 말리가 그리고자 했던 삶의 역설을 온전히 드러냈다.

정명훈의 ‘부활’은 글로 치면 미발식이었다. 1악장부터 한 겹 한 겹 쌓아온 감정과 스토리의 레이어는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더니, 4악장에서 본격적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귀를 괴롭히는 화음들을 단숨에 씻어내듯 ‘매우 장엄하게’ 연주하도록 지시한 4악장은 시작부터 의미가 잘 살아났다. 견고한 아름다움을 지닌 선율이 혼란했던 직전 악장의 고통을 잊게 한다. 성악이 등장하는 4악장은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에서 가져온 텍스트로 가사를 입혔다. ‘근원의 빛’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악장에선 마치 신의 소리를 지상으로 보낸 듯 천상의 선율이 영혼을 어루만진다. 메조소프라노 이단비의 깊이 있고 진중한 음성은 현악, 금관과 어우러져 총명한 의지를 만들었다. 정명훈은 4악장을 앞의 세 악장과 다음에 이어질 5악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삼아 마지막 악장으로 향해 갔다.

30분가량 이어지는 최종 악장은 소리와 메시지, 정서적 감동이 조화를 이룬 음악의 경지를 들려줬다. 말리 교향곡 특유의 도입부가 ‘부활’에서도 등장한다. 5악장은 숨통을 조일 만큼 휘몰아치는 1악장의 제2전개부에서 나온 선율(‘영혼의 동기’)로 시작한다. 5악장에서 중요한 선율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힌트를 주는 대목이다. ‘스케르초의 템포로’라고 지시한 이 악장에선 호른과 트롬본이 ‘진노의 날’ 선율을 반복하며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린다. 삶의 장마다 써내려가는 희로애락의 여정은 길고 지난하다. 저마다 마음속에 파랑새 한 마리를 품지만,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고 그러다 나는 법도 잊은 어떤 삶들을 그린다. 아무리 투쟁해도 이겨보지 못한 삶이었고, 욕망해도 가지지 못한 삶에서 존엄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흑독한 여정을 담은 음악이 폭발하듯 터져 나온다.

거장 지휘자는 지난한 고통을 지지부진하게 끝지 않고 적당한 긴장감과 쫄쫄한 호흡으로 감정을 끌어올렸다. 쥐락펴락 매만진 소리 안에 켜켜이 쌓아온 감정은 총천연색으로 내려앉았다. 금관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서서히 등장하는 합창은 거룩한 부활의 함성이었다. 초저음부터 쌓아 올린 아카펠라 합창은 클롭슈토크의 시 ‘부활’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가사를 노래한다. ‘부활하라’라고 읊조리듯 성스럽게 울려 퍼지는 인성의 하모니는 단연 이날 공연의 ‘최고의 1분’이었다. ‘영적인 지

휘자’라는 수사를 안고 다니는 정명훈이 해석하는 ‘부활’과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인식이 고스란히 투영된 대목이기도 했다.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의 2중창, 합창과 오르간이 더해진 부활의 노래는 다시 한번 찾아올 생을 향한 염원이었다. 처절한 고통일지라도 끝끝내 살아내겠다는 인간 의지의 표상이었다.

이날 정명훈은 타고난 ‘조련사’였다. 한 음, 한 음을 쌓아가고, 다채로운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마다 음량을 조절하고 조율하며 감정의 레이어를 덧댔다. 몇몇 객원(송윤신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조성호 도쿄 필하모닉 수석 역임(클라리넷), 미샤 그로일 전 취리히 톤halle 악장(호른) 등)을 포함해 KBS교향악단 역시 정명훈의 지휘와 해석을 집중력 있게 따라갔다. 그의 ‘부활’은 고난 속에서도 격조를 잃지 않았다. 숭고한 깊이로 품은 장엄한 위로의 노래였다. 마지막 함성과 함께 찾아온 정서적 충만함은 약간의 실수와 아쉬움도 하나의 맥락으로 엮었다. 일부 앙상블에서의 어긋남은 도리어 ‘영원한 미완성’인 우리 삶의 단면처럼 다가왔다. 앙코르로 5악장 중 피날레가 다시 울리자 마침표를 찍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들며 객석으로 가닿았다. ‘나의 시대는 올 것’이라는 했던 말리가 온전히 부활한 날이었다.

글 | 헤럴드경제 고승희 기자

## CONCERT INFORMATION

KBS교향악단 제811회 정기연주회  
2025년 2월 21일(금)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이단비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콩쿠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 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 단원

<b>제1바이올린</b>	최병호 <sup>부악장</sup> 반선경 <sup>수석</sup> 유신혜 <sup>부수석</sup>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예은 신지현
<b>제2바이올린</b>	권민지 <sup>수석</sup> 임정연 <sup>부수석</sup> 안지현 <sup>부수석</sup>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이유진
<b>비올라</b>	진덕 <sup>수석</sup> 한닐리 <sup>부수석</sup>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b>첼로</b>	김우진 <sup>수석</sup> 윤여훈 <sup>부수석</sup>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b>더블베이스</b>	이창형 <sup>수석</sup> 김남균 <sup>부수석</sup> 안수현 <sup>부수석</sup>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박민재
<b>플루트</b>	김태경 <sup>부수석</sup> 이철호 전서영
<b>오보에</b>	이지민 <sup>수석</sup> 김종아 <sup>부수석</sup> 조성호
<b>클라리넷</b>	이승훈 <sup>부수석</sup> 박한 양수현
<b>바순</b>	박준태 <sup>수석</sup> 고주환 <sup>부수석</sup> 김소연 정순민
<b>호른</b>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b>트럼펫</b>	남관모 <sup>수석</sup> 김주원 <sup>부수석</sup> 정용균 김승헌
<b>트롬본</b>	윤지언
<b>베이스트롬본</b>	정다운
<b>튜바</b>	Norito Usui
<b>팀파니</b>	이원석 <sup>수석</sup>
<b>타악기</b>	Jason Yoder <sup>수석</sup> 장세나 Matthew Ernster
<b>하프</b>	김서원

## 객원수석

<b>악장</b>	Andreas Buschatz <small>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악장</small>
<b>플루트</b>	Joshua Batty <sup>수석</sup>
<b>클라리넷</b>	채재일 <sup>수석</sup>
<b>호른</b>	Ben Jacks <sup>수석</sup>
<b>트롬본</b>	김성수 <sup>수석</sup>

## 사무국

<b>사무국장</b>	신승원 <b>대외협력실 실장</b> 김원재
<b>공연기획팀</b>	<b>팀장</b> 손유리 <b>차장</b> 김지민 <b>과장</b> 성채은 <b>대리</b> 전현정 <b>최난희</b> <b>사원</b> 허효정 <b>공연지원파트</b> (악기담당) <b>단원</b>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b>과장</b> 장동인
<b>공연사업팀</b>	<b>팀장</b> 강길호 <b>차장</b> 이한신 <b>과장</b> 이미라 <b>PD</b> 서영재 <b>사원</b> 차하영 장태형
<b>경영관리팀</b>	<b>팀장</b> 손대승 <b>차장</b> 유연철 <b>유정의</b> 박연선 <b>사원</b> 윤자운

#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b>Symphony</b>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 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단체 위한)
<b>Concerto</b>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b>Cantata</b>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b>Nocturne</b>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b>Prelude</b>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b>Etude</b>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 KBS교향악단 이사회

<b>이사장</b>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b>이사</b>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b>감사</b>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b>상임이사</b>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 후원회 명단

<b>Concerto</b>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b>Nocturne</b>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이엠 대표 NH투자증권
<b>Cantata</b>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셈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텍세스 회장 이창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KDB산업은행	<b>Prelude</b>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종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스 대표 윤중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